



남원서 3·8 여성의 날 맞아 연합 캠페인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소장 장신화(는) 지난 6일, 동중동 일대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남원YWCA와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성차별과 폭력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된 날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 감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지역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하트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남원소방서는 지난 6일 오전 구급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 소생과 예후에 크게 기여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심정지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해 기적적인 회복을 도운 구급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 영광의 세이버 인증을 받은 남원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총 9명(인원 119안전센터 6명, 식정 119안전센터 3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출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인원센터 소속 하트세이버 유공자 4명과 식정센터 소속 트라우마 세이버 유공자 1명 등 총 5명이 대표로 참석해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받았다. 남철희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지사협, 어르신 생일상 사업 추진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 및 취약 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특화사업 흥부향토상 생일상 치러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가족과의 왕래가 적고 정서적 고립 속에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직접 치러드리며 인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민반찬, 케이크 및 먹거리 선물 상자를 전달하고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어르신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은 "내 생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하해주시 정말 고맙고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인월면은 2026년에도 생신을 맞은 16명의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 축하드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 본격 첫걸음 내딛다

고창군-선운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 지자체-농협 협력 모델 본격 가동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도 병행... 공동 취사·휴게·위생시설 등 갖춰

고창군과 선운산농협은 지난 5일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과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을 개최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의 중심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였다. 고창군과 선운산농협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며 지역 농업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존중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약속하며,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관리하고 농가에 일일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창군은 2024년도부터 운영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별 농가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력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식에 이어 열린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은 고창군 공영민 선산마을 일원에 위치한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기숙사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시설을 정비해 기숙사로 탈바꿈시키면서 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여 노후 이미지 개선과 마을 환경 정비 효과까지 거두며 지역 재생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대 4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는 공동 취사 시설과 휴게공간, 위생시설



등을 갖춰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은 "오늘 환영식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숙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공급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과 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 수급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과 선운산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은석·이희자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지역에서 벼·밀·보리를 재배하는 권은석·이희자 부부 농가가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농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현장 중심의 모범 농가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권은석·이희자 농가는 벼 중심의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서 나아가 밀·보리 이모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왔다. 특히 국산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과중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재배 관리와 품질 균일화에 힘써 고품질 곡물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적십자 동우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지난 6일 전북 적십자 동우회(회장 강석영)가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 적십자 동우회는 대한적십자사 퇴직 시우들이 교류와 화합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이번 특별회비를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국내 위기가정 지원과 재난구호 등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장수개인택시단위조합, 장수군에 장학금 기탁

(재)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장수군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정춘영)이 지난 5일 군청을 찾아 장학금 21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 공간 '소통가게' 확대

정읍시가 동네 상점을 장애인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 상생형 소통가게'를 올해 총 28곳으로 확대하며, 지난 5일 참여 상인들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읍시장에인접충북지관은 복지관 1층 소회의실에서 소통배움가게 28개소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소통가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올해 새롭게 합류한 7개 상점과의 신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사업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따뜻한 손길에 다시 일어설 용기 얻었습니다"

80대 환자, 전북대병원에 감사 편지 보내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80대 환자가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와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손편지로 전해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편지를 보낸 이는 산부인과 김종현 교수(사인)의 환자인 80대 여성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느낀 의료진의 세심한 진료와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손편지를 작성했다.

환자는 편지에서 "힘들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 의료진의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성심껏 설명해주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의술과 인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참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됐다"며 "어든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시 일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노년의 길을 하루하루 소중히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셔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책임감 있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이번 감사 편지는 환자 중심 의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높은 전문성과 협력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해외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2026 몽골 새마을운동 수탁교육 수료식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림)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026 몽골 새마을운동 수탁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과 몽골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몽골 연수생 21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교육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철학, 농촌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지역 발전에 적용 가능한 새마을운동 현지화 방안도 모색했다.

수료식에서 최형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지역에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구상을 몽골 현지에 잘 적용해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150개국 6만18,000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13개국에서 약 400명의 외국인을 초청해 새마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정읍-고창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 상호 기부

정읍시와 고창군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두 이웃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지난 5일 정읍시청에서 각각 4,000만원씩을 교차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김순기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장과 이미정 고창군지부장을 비롯해 두 지역의 6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는 정읍에서 샘골, 신태인, 정읍, 철보, 태인, 황토현, 원예농협, 순정축협 등 8곳이 참여했다. 고창에서는 고창, 대성, 선운산, 해리, 흥덕농협, 축협 등 6곳이 동참했다. 각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은 정성을 모아 상대 지자체에 4,000만원씩을 기부하며 두 지역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을 누리잡이나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전국 농협 대면 창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기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